

영·한 번역과정에서의 서법전환에 관한 연구*

노상희 · 박기성

(동서대학교) (부산대학교)

Noh, Sanghee & Park, Kiseong. 2008. A Study on the Mood Changes in the English-Korean Text Translation.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6(4), 111-128.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matches and mismatches of mood structures in translating English (source) texts into Korean (target) texts. As for the correspondence of mood structures in the two languages, there are two positions: The first one is that there are considerable mood mismatches in translation between the two languages, because there are differences in linguistic typology between them; the second one is that there will be considerable canonical correspondences between mood types and illocutionary forces in the two languages. It is shown that the second (position) is true. In addition, we examine the possible factors which cause (the) mood mismatches in terms of the person types of the subjects, the verbal types, the types of interrogative clauses, and the presence of tag-questions. First, it is shown that the second person subjects are more responsible for the mood change in translation than the first or third person subjects. Second, it is shown that English dynamic verbs more readily cause mood changes in translation than non-dynamic ones. Third, English *yes-no* questions are more accessible to mood changes in translation than *wh*-questions. Fourth, English tag-questions which involve the declarative mood are all translated into Korean with interrogative mood.

Key Words: sentence mood, verbal mood, English-Korean translation, mood matches and mismatches, indicative, interrogative, semantic equivalence

1. 머리말

* 익명의 심사위원 3명으로부터의 귀중한 조언에 감사드린다.

서법(mood)이란 화자와 청자가 의사소통을 할 때, 말하는 내용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표현하여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는 문법범주이다. 이러한 서법 범주에 대한 기본적 언어 단위는 절(clause) 혹은 문장(sentence)이며, 서법은 화자와 청자 간의 대인간의 의미(interpersonal meaning)를 표현한다(Downing & Locke, 1992). Frege(1918: 22)가 처음 각 문장에는 힘("Kraft")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힘은 문장의 형태에 의해 표시된다고 주장한 이래, Jespersen(1924) 등의 많은 학자들이 각 서법은 문장 형태와 언표내적 힘의 특정한 관계적 결합이라는 견해를 가져 왔다(Harnish, 2006).

서법에 대한 분류는 학자에 따라 매우 다양하지만, 주요 서법 범주로서는 평서법(declarative), 의문법(interrogative), 명령법(imperative)의 삼분법이 사용된다. 각각의 서법 구조는 그에 상응하는 전형적인 언표내적 힘(illocutionary force)과 관련성을 갖는다.¹⁾ 즉 평서법은 전형적으로 진술(statement)을 하는 문장이며, 의문법은 질문(question)을 표현하는 문장이며, 명령법은 명령(command)이나, 요청(request)을 표현하는 문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형적인 대응관계가 항상 적용되지 않으며, 화자와 청자의 대화맥락을 아울러 고려하여 결정된다. 즉 각각의 서법유형은 각 유형에 상응하는 전형적이거나 비전형적인 다양한 언표내적 힘과 관련된다(Downing & Locke, 1992).

본 연구에서는 영한 번역 과정에서의 서법 일치와 불일치의 경향성을 알아보고자 하며, 서법 불일치의 경우 그러한 서법전환을 유도하는 요인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의 기본적 가정은 영한 번역 과정에서 서법의 일치와 불일치의 경우 중에서 서법 일치 현상이 주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는 각 언어의 서법이 전형적인 언표내적 힘을 갖는 경우가 많을 것이며, 번역이 이러한 의미적 등가성(semantic equivalence)을 반영하기 때문에 서법 일치를 보이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둘째, 이러한 불일치를 유발하는 요인들은 다양한 것으로 예상되며, 그 불

1) Downing and Locke(1992)는 의사소통적 행위(communicative act) 속에서 언표내적 힘이 생성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Searle(1976)은 언표내적 힘(illocutionary forces)을 단언행위(Assertives), 지시행위(Directives), 인약행위(Commissives), 표현행위(Expressives), 선언행위(Declaratives) 다섯 가지 범주로 나누고 있다. Fraser(1974)는 의도성의 관점에서 단언, 평가, 태도, 규정, 요청, 제의, 합법화, 언질부과 8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또한 Leech(1983)는 단언, 지시, 언질부과, 질문, 표현등 5가지 유형으로 설정하였다.

일치의 요인들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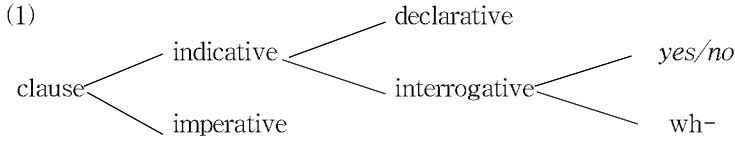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화 *Notting Hill*과 *Love Actually*, 소설 *O. Henry's Short Story*의 영한 대역본 가운데 대화체 문장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 번역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영어 서법구조와 한국어 서법구조의 번역 과정 차이를 이해해 보고자하며, 이를 통해 번역과정에서의 서법불일치를 통한 서법전환의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영어와 한국어의 서법 유형과 화형

2.1. 서법의 정의 및 유형

화자가 문장을 발화할 때, 그 화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발화를 하게 되며, 그 발화는 통사적 구조로 나타난다. 이 때 나타나는 통사구조가 서법 유형이다. 서법구조에 관한 논의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지만, 학자마다 서법유형에 관해 조금씩 차이를 두고 있다. 과거 전통문법학자들은 서법유형을 직설법(indicative), 가정법(subjunctive), 명령법(imperative)으로 나누었으며, 이것을 Jespersen(1924)은 각각 서실법(fact-mood), 서상법(thought-mood), 서의법(will-mood)으로 설명하였다. Borjars & Burridge(2001)는 서법유형을 4가지—평서법, 의문법, 명령법, 감탄법(exclamative)—로 나누고 있으며, Huddleston & Pullum(2002)은 5가지—평서법, 명령법, 감탄법, 폐쇄 의문법(yes/no-의문법), 개방 의문법(wh-의문법)—로 나누고 있다. Allan(2004)은 6가지—평서법, 의문법, 명령법, 표현법(expressive; 예를 들면 *thank you*), 평서법 유형인 가정법(*I wish I were ...*), 의문법 유형인 가정법(*Would you mail this for me?*)—으로 나누고 있다. 하지만 영어 가정법은 문장 서법이라기보다는 동사 서법(verbal mood)이며, 평서법의 구조로 나타나기 때문에, 영어에서 가정법을 따로 분리해 줄 필요는 없다(Allan, 2004). Sadock & Zwicky(1985)는 35개 언어를 조사하여, 모든 언어가 발화 상황에 따라 크게 평서법, 의문법, 명령법으로 나누어짐을 발견하였다. 그러므로 대부분 언어는 이 세 가지 서법(평서법, 의문법, 명령법)으로 표현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Sadock & Zwicky(1985)와 Downing & Locke(1992: 165) 등의 견해를 따라, 영어 주요 서법 구조를 평서법, 의문법, 명령법으로 나누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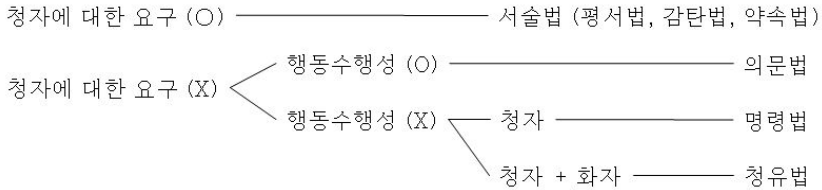
Downing & Locke(1992: 165)

위의 (1)에서와 같이, 문장은 크게 직설법과 명령법으로 나누어지고, 직설법은 평서법과 의문법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의문법은 다시 *yes/no*-의문법과 *wh*-의문법으로 나누어진다. 영어의 서법유형을 결정하는 요소는 주어와, 정형요소(*finite element*: 주제의 수, 인칭, 시제를 표시하는 정형적 조동사 요소)이다. 평서법 문장은 주어 동사 순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의문법은 주어와 정형 요소가 도치되어 나타난다. 그리고 명령법은 주어 없이 동사만 문장 첫머리에 나타나며, 동사 원형으로만 실현된다(Downing & Locke, 1992).

- (2)
- a. She will report to Head Office tomorrow. (평서법)
 - b. Did you have a time? (*yes/no*-의문법)
 - c. What's your name? (*wh*-의문법)
 - d. Be careful! (명령법)

하지만 한국어 서법 유형은 영어와 달리, 주어와 동사가 아닌 다른 요소에 의해서 결정된다. 국어 교육학 사전(1999)에 따르면, 한국어의 주요 서법유형 역시 평서법, 의문법, 명령법으로 이루어지며, 감탄법, 청유법 등의 서법 구조를 설정하기도 한다. 권재일(1992)은 국어의 서법구조는 청자에 대하여 화자가 가지는 태도를 실현하는 문법범주(의향법)이며, 이는 서술법(평서법, 감탄법, 약속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 4가지 범주로 나누어지고, 한국어는 종결어미에 의하여 문법범주가 실현되기 때문에 청자 높임법과 겹쳐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국어의 서법유형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 한국어 의항법(문장 범주)



권재일(1992)

(3)에서처럼 한국어는 서술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으로 체계화할 수 있으며, 서술법은 영어의 평서법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한국어에서는 청유법을 하나의 서법구조로 보고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영어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청유도 명령의 일부로 분석하고자 한다²⁾(고영근, 1967). 의미적으로 볼 때, 한국어의 서법구조도 영어의 서법구조와 거의 유사하게 청자의 행동수행성과 같은 의미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어의 서법구조는 주어, 동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영어와 달리, 술어(동사)의 종결어미에 의해서 달라진다. 특히 한국어에서는 종결어미의 형태에 청자와 화자 간의 계급, 연령, 친분 등의 관계가 반영된다. 그러므로 한국어에서는 공손성(politeness)을 고려해야함이 영어의 경우와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 (4) a. 그녀는 내일 본사로 보고를 할 것입니다.
- b. 당신은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까?/ 너는 좋은 시간을 보냈니?
- c.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름이 뭐니?
- d. 조심하십시오./ 조심해라.

(4a)문장은 종결어미 '다'로 끝나며, 화자가 어떤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즉 청자의 행동수행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4b, c)문장은 청자에게 질문에 대한 답을 요구하고 있을 뿐 행동 수행성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4d)문장은

2) 청유문을 명령문과 같은 범주에서 다루는 근거는 화자가 청자에게 행위를 요구한다는 의미, 화용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형태, 통사적인 측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 청유문은 명령문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동사에 대해서만 성립하며, 시제나 양태 표시의 형태소가 결합되지 못한다.

청자에게 행위를 하라 라는 행동수행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하십시오(요)’는 ‘-해라’의 공손표현이며, 전형적인 극존칭 명령법 종결어미이므로 명령법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영어와 한국어의 서법유형에 관해 살펴보았다. 영어, 한국어 모두 크게 볼 때 전형적인 3가지 서법유형으로 실현될 수 있으며, 영어 서법유형은 주어와 동사에 의해서 결정되고, 한국어 서법유형은 주어 유무와 상관없이 동사의 종결어미에 의해서 결정되며 특히 공손성을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2.2. 서법유형과 언표내적 힘의 상관관계

평서법, 의문법, 명령법은 각각 진술, 질문, 명령의 전형적인 언표내적 힘을 가진다. Eggins(2004: 147)는 서법과 언표내적 힘과의 전형적 대응에 대해 다음과 같은 표를 제시하고 있다.

표1. 서법과 언표내적 힘의 전형적 대응 관계

언표내적 힘(화행 기능)	전형적 서법
진술	평서법
의문	의문법
명령	명령법
제안(offer)	조정된(modulated) 의문법
응답(answer)	생략(elliptical) 평서법
승인(acknowledgement)	생략 평서법
수용(acceptance)	소절(minor clause)
응낙(compliance)	소절

그러나 각각의 서법은 이러한 전형적인 언표내적 힘 외에도 여러 가지의 언표내적 힘과 관련된다(Levinson, 1983). 언표내적 힘은 발화의 행위적 속성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장들이 문맥에 따라 한 가지 이상의 언표내적 힘을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평서법 문장이지만 질문(의문)의 언표내적 힘을 가질 수도 있으며, 의문법이 명령의 언표내적 힘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다. Harnish(2007, 182)에 의하면, 서법과 언표내적 힘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네 가지 정도의 이론이 제안되어 왔다. 첫째 이론은 특정 힘 이론(Specific Force Theory)으로 각각의 서법은 특정한 언표내적 힘과 연관된다는 이론이

다. 두 번째 이론은 당연(특정) 힘 이론(Default(Specific) Force Theory)으로 각각의 서법은 특정한 언표내적 힘과 연관되지만, 다른 특별한 힘과 연관되지 않을 때는 당연적 힘과 관련된다는 이론이다. 세 번째 이론은 힘-잠재 이론(Force-Potential Theory)으로 각 서법은 언표내적 힘 잠재력과 연관되고, 문맥적 정보가 주어지면 그 잠재적 힘 중의 하나가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네 번째 이론은 힘 부인 이론(No Force Theory)으로 문장은 단지 언어적으로 충족 조건(satisfaction conditions)만을 부호화하고, 서법과 관련된 언표내적 힘은 충족 조건에서 파생되어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 번째 이론인 힘-잠재 이론을 근거로 논의를 전개해 가고자 한다.

각 서법이 문맥적 정보가 주어질 때 그 잠재적 힘이 결정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영어 예를 살펴보자.

- (5) a. It's raining?
- b. Papers are to be in by April 15.
- c. I want you to close the door.
- d. Could you close the door?

(5a)에서 (5c)까지의 문장은 주어와 동사 순으로 이루어진 평서법 문장이자다. 하지만 (5a)문장은 끝을 올려 질문의 힘을 나타내고 있으며, (5b)문장은 ‘~해야만 한다’는 의무를 명령의 힘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5c)는 동사 ‘want’ 사용으로 인해, 단순한 진술문이 아닌 청자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명령의 힘을 가지게 되며, (5d)문장은 의문법이지만 청자에게 답을 요구하는 질문의 힘을 가지기 보다는 문을 닫아달라는 명령의 힘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각 서법유형들과 언표내적 힘은 문맥적 정보에 의해 결정되며, 일대일 대응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한국어 서법과 언표내적 힘 사이에도 영어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예를 들어 평서법은 다양한 언표내적 힘을 나타낸다. 다음의 한국어 문장을 살펴보자.

- (6) a. 그 사람은 참 성실하다.
- b. 창문을 좀 닫아주면 좋겠다.
- c. 너의 의견을 말해주면 좋겠다. 박영순(2001)

(6)문장은 모두 종결어미 ‘다’로 끝나는 평서법의 서법구조를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6a)는 전형적인 진술의 힘을 갖고 있다. 하지만 (6b)문장은 “창문을 닫아라.”라는 명령의 언표내적 힘을 갖고 있으며, (6c)문장은 “너의 의견이 무엇이나?”와 같은 질문의 언표내적 힘을 갖는다. 이와 같이 한국어

의 평서법 또한 ‘바라다’ 혹은 ‘좋겠다’ 등의 동사를 사용하여 명령, 질문 등 여러 가지의 비전형적인 언표내적 힘을 나타낼 수 있다(고영근, 1989).

명령을 나타내는 언표내적 힘도 다음과 같이 다양한 서법으로 표현될 수 있다.

- (7) a. 문 좀 닫-아라/-자.
 b. 창문 좀 닫아줄래?
 c. 창문을 좀 닫아주면 좋겠다. 박영순(2001)

위 문장들은 종결어미를 달리하여 명령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7a)문장이 전형적인 명령법으로 명령의 의미가 강하며, (7b)에서 (7c)로 갈수록 명령의 의미는 약하다. (7b)는 의문법으로 실현되어 있으며, (7c)는 평서법으로 실현되어 있다. 그러므로 한국어의 언표내적 힘은 영어와 같은 서법 요소와 어순 구조에 의존하기보다 동사 종결어미와 명시적 동사에 의해 표현된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영어와 한국어의 서법구조와 언표내적 힘과의 상관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2. 영어와 한국어 서법구조와 언표내적 힘

영어 서법구조	한국어 서법구조	언표내적 힘
평서법(주어 + 동사)	평서법 ‘-다’	진술, 질문, 명령
의문법(동사 + 주어)	의문법 ‘-(느)냐’	질문, 명령, 진술
명령법(동사)	명령법 ‘-라’	명령, 진술

이상 각각의 서법구조가 어떤 언표내적 힘을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영어와 한국어의 평서법은 언표내적으로 진술, 질문, 명령(요청)으로 표현되었으며, 의문법은 질문, 명령(요청), 진술을 표현하고, 명령법은 명령과 진술의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 가능했다. 위 분석을 기준으로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역될 때, 영어의 서법유형들이 한국어에서는 어떤 서법유형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언표내적 힘은 어떻게 실현되는지 두 언어의 상호작용에 관해 3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3. 영한 번역에서의 서법 일치 및 불일치

3.1. 언표내적 힘과 서법전환

2장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서법유형과 언표내적 행위 사이에는 일대

다의 대응관계를 맺고 있다. 이를 통해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영한 번역과정에도 의미적 등가성을 유지하기 위해 원어의 서법 구조를 반영하지 않고 해당 언표내적 힘에 전형적으로 상응하는 서법구조로의 서법 변화가 나타날 수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그러한 서법 변화의 양상을 영화와 소설의 대화체 문장에 대한 영한 대역본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구어체 영한 대역본 분석을 위해 대중들이 접근하기 쉬운 영화와 소설을 선택하였다. 영화는 로맨틱 코미디 영화, *Notting Hill*과 *Love Actually*를 중심으로, 소설은 *O. Henry's Short Stories*를 중심으로 서법유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각 대역본 별로 영어 서법유형의 빈도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본 다음, 각 영어 서법유형이 한국어로 번역될 때 어떤 서법유형으로 나타나는지 그 빈도를 비교 분석할 것이다. 또한 서법유형변화에 영향을 준다고 예상되는 언표내적 힘(문장의미)과 하위 서법유형(통사구조)을 살펴서 언표내적 힘과 서법전환, 그리고 하위 서법유형과 서법전환의 상호작용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먼저 각 원본의 발화 횟수와 서법유형별 빈도를 살펴보자. 영화 *Notting Hill*에서 사용된 총 발화횟수는 1670회이며, *Love Actually*의 발화 횟수는 1330회 *O. Henry's Short Stories*에서의 발화횟수는 총 926회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감탄과 가정법은 구조적으로 평서법과 같기 때문에, 평서법에 포함 시켰다. 이 영화와 소설에서 표현된 총 발화행위가 어떤 서법유형으로 표현되었는지 빈도수를 살펴보자.

표3. 각 대역본별 서법유형

작 품	서 법 유 형 별 횟수(%)	계(%)
<i>Notting Hill</i>	평서법 1304(78.1%)	1670 (100%)
	의문법 244(14.6%)	
	명령법 122(7.3%)	
<i>Love Actually</i>	평서법 1054(79.3%)	1330(100%)
	의문법 168(12.6%)	
	명령법 108(8.1%)	
<i>O. Henry's Short Stories</i>	평서법 757(81.8%)	926(100%)
	의문법 104(11.2%)	
	명령법 65(7.0%)	

영화와 소설에서의 서법유형 빈도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대화는 평서법 형태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의문법, 그리고 명령법의 빈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영화에 비해 단편소설에서는 평서법이 다소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영한 번역 과정에서의 서법 유형의 대응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표4’를 보자.

표4. 영한 대역본의 서법 유형의 대응 관계

작품(횟수)	영어서법유형(횟수)	한국어 서법유형	
		횟수	빈도수(%)
Notting Hill (1670)	평서법(1304)	평서법(1274)	97.7
		의문법(24)	1.8
		명령법(6)	0.5
	의문법(244)	평서법(13)	5.3
		의문법(223)	91.4
		명령법(8)	3.3
	명령법(122)	평서법(5)	4.1
		의문법(5)	4.1
		명령법(112)	91.8
		평서법(1027)	97.4
Love Actually (1330)	평서법(1054)	의문법(21)	2
		명령법(6)	0.6
		평서법(13)	1.8
	의문법(168)	의문법(163)	97
		명령법(2)	1.2
		평서법(3)	2.8
	명령법(108)	의문법(4)	3.7
		명령법(101)	93.5
		평서법(751)	99.2
		의문법(4)	0.5
O. Henry's Short Stories (926)	평서법(757)	명령법(2)	0.3
		평서법(5)	5
		의문법(95)	91
	의문법(105)	명령법(4)	4
		평서법(0)	0
		명령법(64)	3.1
	명령법(64)	의문법(2)	3.1
		명령법(63)	96.9

‘표4’를 살펴본 결과, 영어의 서법 유형이 한국어 번역문에서도 그 서법 유형이 유지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영어 평서문과 한국어 평서문의 대응 관계가 영어 의문법과 한국어 의문법의 대응이나 영어 명령법과 한국어 명령법의 대응관계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이제 서법 유형의 불일치가 나타나는 경우들을 살펴보자. 먼저 영어 평서법이 한국어 의문법으로 번역된 예를 살펴보자.

- (8) a. You like Shagal. 샤갈을 좋아해요?
 b. That's a novel too, isn't it? 그것도 소설 아닌가요?
 c. You know who she is. 그녀가 누군지 안다고?

(8a)는 평서법의 구조를 가지지만 끝을 올려 질문을 하는 문장이다. 이 문장이 억양(intonation)에 의한 서법구조 변화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8b)문장은 평서법 구조를 가지면서 뒤에 의문법 요소를 첨가한 부가의문문 형태이다. 대부분의 영어 부가의문문 형태는 한국어에서 의문법의 서법구조로 표현되었다. 부가의문문 서법전환은 소절 3.2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그리고 (8c)문장은 학교문법에서 간접의문문으로 알려진 구조이며, 평서법구조이지만 의문사가 와서 언표내적으로는 질문을 표현한 문장이다. 이처럼 한국어로 번역될 때, 영어와 다른 서법유형으로 번역되는 것은 영어문장의 언표내적 힘이 질문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며, 번역 과정에서 그대로 언표내적 힘이 유지되고 있다.

다음으로 영어 평서법이 한국어 명령법으로 번역되는 예를 살펴보자.

- (9) a. You can stay calm. 당신이나 진정해요.
 b. You could get cleared up. 씻고 가세요.
 c. They are yours if you want them. 원하신다면 드세요.
 d. We'll see you in a couple of days. 며칠 후에 보자.

(9a)와 (9b) 문장은 청자 ‘You’가 주어로 나타나 있다. 즉 명령법의 서법요소(주어가 청자임)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명령, 제안의 언표내적 힘을 표현하고 있다. (9c)문장은 평서법이지만 종속절에 조건문이 와서 ‘원한다면 . . . 해도 된다’라는 허락의 언표내적 힘을 표현하고 있다. 이 문장 또한 조건절의 주어가 2인칭으로 표현되어 있다. (9d)문장도 평서법의 구조이지만 ‘너를 만날 것이다’라는 진술 속에, 주어를 ‘We’로 표현함으로써, ‘함께 보자’라는 ‘Let’s’의 내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언표내적 행위로 보았을 때, 위 문장들은 단순한 진술이 아니라 상대방(You)에게 제안을 하거나 명령을 하는 언표내적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에서는 명령법으로 번역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영어 의문법이 한국어로 번역될 경우에도, 역시 대부분 같은 서법구조를 유지하면서 번역되었다. 먼저 영어 의문법이 한국어 평서법으로 번역된 예를 살펴보자.

- (10) a. What was I thinking? 내가 무슨 말을 한 거야.
 b. Is a man worth, no. 남자가 그럴만한 가치가 없어요.

(10)의 두 문장 모두 의문법의 서법유형으로 표현되어 있다. 하지만 언표내적 힘을 질문으로 보기는 어렵다. (10a)문장은 청자에게 질문한 것이 아니며, 자신이 한 말에 대한 후회를 나타내고 있다. (10b)문장은 주어 동사가 도치된 전형적인 의문법 형태의 문장이지만 답을 요구하는 문장이 아니다. 그러므로 한국어에서 평서법으로 번역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영어 의문법이 한국어 명령법으로 번역된 예를 살펴보자.

- (11) a. Do you wanna come this way? 이쪽으로 오세요.
 b. Would you mind bringing up some really cold water?
 시원한 물 좀 올려 보내주세요.
 c. Will you tell her I'll bring her back? 곧 다시 전화한다고 해!

영어의 의문법이 한국어에서는 명령법으로 번역되어 있다. 위 문장들의 공통점은 모두 주어가 2인칭(You)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이다. 의문법이 평서법, 명령법으로 번역된 위 문장들을 살펴본 결과 언표내적으로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여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안, 요구, 확인을 위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명령법에 대해 살펴보자. 영어의 명령법 또한 한국어로 번역될 때 서법전환이 빈번하지 않다. 소실 번역본에서는 영어 명령법이 한국어 평서법으로 번역된 예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영화번역에서의 영어 명령법이 한국어 의문법으로 서법 전환된 예는 찾아 볼 수 있으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12) a. Have some wine. 와인 하실래요?
 b. Give me that rose you are wearing, will you?
 당신이 꽃고 있는 그 장미 나에게 주지 않겠소?

영어의 명령법이 한국어의 의문법으로 번역 가능한 이유는 명령법의 잠재적 주어가 청자이며, 의문법의 주어 또한 청자라는 공통된 특징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어에서는 공손성의 원칙이 반영되어 직접적인

명령표현으로 번역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영어 명령법이 한국어 평서법으로 번역된 경우를 살펴보자.

- (13) a. Give me five minutes. 5분후에 올라갈게요.
 b. Let me just have a quick look. 잠깐 보기만 할게요.
 c. Remember I was a kid once too. 아빠도 너처럼 어린 시절이 있었어.

위 영어 명령법 문장들은 한국어에서 모두 평서법으로 번역되어 있다. 그리고 (13a)와 (13b)문장은 청자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명령의 의미라기보다는 화자가('I', 'me')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의미가 강하며, (13c)문장은 문맥상 아들에게 '꼭 기억해'라는 강한 명령의 언표내적 힘은 가지지 않는다.

지금까지 영어의 서법구조와 한국어 번역본의 서법구조와 대응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영한번역 과정에서의 서법구조의 불일치는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빈번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서법일치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이것은 각 서법유형이 그 서법유형에 전형적인 언표내적 힘에 의존하기 때문이며, 의미적 등가성을 지키기 위해 한국어에서도 서법유형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 번역시 서법구조의 일치를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2. 서법전환의 요인

본 절에서는 서법 불일치를 통한 서법전환의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지적된 대로 영어의 서법유형 결정은 주어와 동사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먼저 주어인칭을 하나의 요인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둘째 동사유형을 역동적 동사와 비역동적 동사로 분류하여 동사의 유형에 따른 서법전환의 경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셋째, 의문법 유형을 폐쇄 의문법과 개방 의문법으로 분류하여 서법전환의 경향성에 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법전환이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문장유형인 부가의문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앞서 언급한 대로 영어문장의 서법은 주어, 동사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영어 문장에서 주어의 역할은 아주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번역시 서법전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주어가 될 수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명령법의 주어는 모두 'YOU'이기 때문에 인칭분석에서는 평서법과 의문법에 대해서만 살펴보려고 한다.

인칭별 서법전환의 빈도를 '표5'를 통해 살펴보자.

표5. 인칭에 따른 서법전환

인칭	영어 서법	한국어 서법	전환 횟수	계(%)
1인칭(895)	평서법	의문법	6	22(2.46%)
		명령법	4	
	의문법	평서법	12	
		명령법	0	
2인칭(659)	평서법	의문법	19	46(6.98%)
		명령법	10	
	의문법	평서법	3	
		명령법	14	
3인칭(2372)	평서법	의문법	24	30(1.26%)
		명령법	0	
	의문법	평서법	6	
		명령법	0	

‘표5’에 의하면, 1인칭일 경우 의문법에서 평서법으로의 서법전환이 많았으며, 2인칭은 영어 평서법이 한국어 의문법으로의 서법 전환, 그리고 영어 의문법이 한국어 명령법으로의 서법전환이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3인칭은 영어 평서법에서 한국어 의문법으로의 서법전환이 많이 일어났다. 특히 2인칭일 경우 서법전환의 빈도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의문법과 명령법이 2인칭 청자 중심으로 표현되는 문장이기 때문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서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동사의 유형에 따라, 번역시 서법 일치와 불일치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 지를 살펴보자. 본 논문에서는 역동적(dynamic) 동사와 비역동적(non-dynamic) 동사로 나누어 서법전환의 빈도를 보여주는 ‘표6’과 예문(14)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표6. 동사유형별 서법전환

영어 원문 동사유형	한국어 서법유형	횟수(%)	계(%)
역동적 동사(198)	평서법	16(8.08)	41(20.7%)
	의문법	12(6.06)	
	명령법	13(6.56)	
비역동적 동사(3728)	평서법	13(0.34)	66(1.77%)
	의문법	38(1.02)	
	명령법	15(0.4)	

- (14) a. We will go to the airport. 공항으로 가자.
 b. You can stay calm. 당신이나 진정해요.
 c. Will you tell her I'll ring her back? 다시 전화한다고 해.
 d. I could drop round for tea later or something.
 차나 한잔 마시러 가도 될까요?
 e. You like Shagall. 샤갈을 좋아하세요?
 f. You want to marry my daughter?
 당신이 내 딸과 결혼하고 싶다고요?
 g. You didn't know she had a boyfriend?
 그녀에게 남자친구가 있는 것을 몰랐다고?
 e. Do you wanna come this way? 이쪽으로 오세요.

(14a)부터 (14d)까지의 문장은 역동적 동사의 번역 예이며, (14e)부터 (14h)까지의 문장은 비역동적 동사의 번역 예이다. 대화체에 사용되는 동사유형은 비역동적 동사(*want, hope, be, know, have, think* 등)의 사용 빈도가 높으나, 동사 유형에 따른 서법전환 사례를 비교했을 때, 서법 전환을 유도하는 동사 유형은 역동적 동사가 빈도수에서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역동적 동사 문장 중 20.7%가 서법 전환과 관계됨). 비역동적 동사의 경우, 서법전환과 관계되는 한국어 서법 유형은 의문법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의문법의 두 유형인 폐쇄 의문(*yes/no*-의문법)과 개방 의문(*wh*-의문법)의 구분에 따른 서법 전환의 빈도를 아래 '표7'과 예문(15)를 통해 살펴보자.

표7. 의문법 유형별 서법전환

영어	의문법 유형	한국어	횟수	계
의문법 (516 회)	폐쇄의문(339회)	평서법	19	31(9.1%)
		명령법	12	
	개방의문(177회)	평서법	7	9(5%)
		명령법	2	

- (15) a. Can you just give me a second? 잠깐 실례합니다.
 b. Would you like to meet the household staff?
 수상관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c. What was I thinking? 내가 무슨 말을 한 거야.
- d. How is it going? 안녕하세요.
- e. What can I say? 어쩔 수 없지.
- f. How are you doing? 안녕하세요.
- g. Who wouldn't? 누구나 그렇게 될 거예요.
- h. Who cares? 무슨 상관이야.
- i. Why don't you call a cap? 경관을 불러와요.
- j. Why don't you call a policeman? 경관을 부르지 그래요.

‘표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과 의문법이 평서법으로 서법전환 될 때, wh-의문법 보다는 *yes/no*-의문법에서 서법전환이 잘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 (15a)와 (15b)는 폐쇄의문법의 예이며, (15c)에서 (15j)까지의 문장은 개방의문법의 예이다. 의문법에서 명령법으로 서법전환이 발생한 경우는 영어 의문법이 언표내적으로 ‘you’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 제안이나, 명령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임을 예측할 수 있다.

이제 평서법의 서법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질문의 언표내적 힘과 연관되는 부가의문문이 서법 유형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를 아래 ‘표 8’과 예문(16)을 통해 살펴보자.

표8. 부가의문문의 서법전환

	평서법	의문법	명령법
부가의문문(14)	0	14	0

- (16) a. I'll fire away, shall I? 빨리 질문을 하죠, 그래도 될까요?
 - b. You're Sam's dad, aren't you? 샘아빠 되시죠?
 - c. This painting isn't the original, is it? 그림이 진짜는 아니겠죠?
-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가의문문의 전형적인 언표내적 힘인 질문을 표현하기 위해 번역시에 모두 의문법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영한번역을 중심으로 영어의 서법유형이 번역 시 한국어에서는 어떤 서법유형으로 나타나는지 영화와 소설 텍스트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영어의 3가지 주요한 서법유형인 평서법, 의문법, 명령법이 한국어에서도 90% 이상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영어 본래의 서법이 전형적인 언표내적 힘을 많이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번역 과정에서도 그러한 경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다음으로 서법불일치를 보인 경우에 대해, 서법 전환의 요인들을 몇 가지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먼저 인칭과 서법 변화의 상관성에 대해 살펴 본 결과, 2인칭 문장의 경우 1인칭이나 3인칭에 비해 많은 서법 전환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역동적 동사와 비역동적 동사의 구분과 관련하여 볼 때, 역동적 동사가 서법 전환과 보다 많은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문법의 경우, *wh*-의문법보다는 *yes/no*-의문법에서 서법전환의 발생 빈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영어 부가의문문 형태는 번역 시 한국어에서 모두 의문법으로 표현되었다.

참고문헌

- 고영근. (1967). 현대국어의 선어말 어미에 대한 구조적 연구. *어학연구*, 3(1), 51-63.
- 고영근. (1989). *국어형태론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 권재일. (1992). *한국어 통사론*. 서울: 민음사
- 박영순. (2001). *한국어 문장의미론*. 서울: 박이정.
- 우수정. (2004). *Love actually*. 서울: 스크린 영어사
- 우수정. (2005). *Notting hill*. 서울: 스크린 영어사.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1999). *국어 교육학 사전*. 서울: 대교출판
- 정경호. (2006). *O. Henry's short stories*. 서울: S.P.G.
- Allan, K. (2004). Clause-type, primary illocution, and mood-like operators in English. *Language Sciences*, 28, 1-50.
- Borjars, K. & Burridge, K. (2001). *Introducing English gramma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Downing, A. & Locke, P. (1992). *A university course in English grammar*. New Jersey: Prentice-Hall.
- Eggsins, S. (2004). *An introduction to 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New York: Continuum.
- Harnish, R. (2006). Mood and inference. *Research in Language* 4, 57-75.
- Harnish, R. (2007). Mood: What's the illocutionary point?. In P. Cap, and P. Nijakowska (Eds.), *Current trends in pragmatics* (pp. 182-204). Newcastle: Cambridge Scholars Press.

- Fraser, B. (1974). A Partial analysis of vernacular performative. In R. Shuy, and C. Bailey (Eds.), *Towards tomorrow's linguistics* (pp. 139-158). Washington: Georgetown University Press.
- Huddleston, R. & Pullum, G. (2002). *The Cambridg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espersen, O. (1924). *The philosophy of grammar*. NY: Norton.
- Leech, G. (1983). *Principles of pragmatics*. London: Longman.
- Levinson, S. (1983). *Pragma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dock, J. & Zwicky, A. (1985). Speech act distinctions in syntax. In T. Shopen(Ed.), *Language ty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 (pp. 155-196).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earle, J. (1976). The classification of illocutionary acts. *Language in Society*, 5, 1-24.

노상희(주저자)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

동서대학교 인문대학 교양학부

전화: (051) 320-1650

이메일: sangs2000@hanmail.net

박기성(교신저자)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산 30번지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전화: (051) 510-2043

이메일: ksepark@pusan.ac.kr

Received: 26 September, 2008

Revised: 29 November, 2008

Accepted: 8 December, 2008